

News

국고채 금리 연일 역대 최저... "금리 인하 기대"

연합뉴스

25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 내린 연 0.815%에 마감...5거래일 연속 하락...장기물 금리 동반 하락, 10년물도 3.1bp 내린 연 1.316%에 마감... 국고채 금리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

코로나에 鍛 대외채무 급증...환율 뛰면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올해 1분기 은행권 대외채무 271조...1·4분기 중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화 차입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환율 상승시 대외채무 부담 가중... 최근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외국계 자금 국내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외채무 상환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신한-하나금융 "세계시장에서 과당경쟁 피하고 협력"

연합뉴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부문에서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글로벌 사업 전반의 공동 영업 기회 발굴 및 추진, 각종 규제·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공동 신규 해외시장 진출·해외 공동 투자·해외 네트워크 조성 등에 나설 계획

ELT 규제 막힌 은행권, 코로나 이후 '공모 ELF'로 눈 돌린다

파이낸셜뉴스

전체 은행의 공모 파생형 펀드의 판매잔고는 지난 4월 말 기준 8조3,180억원으로 집계...전월 대비 10.5%(7878억원) 증가한 규모... 공모 파생형 펀드의 대표적 상품은 ELS를 편입한 금융투자상품인 ELF...1월과 비교하면 전체 은행의 ELF 판매잔고 33.4% 급증...

금융위기에도 늘었는데...카드사용액, 코로나로 두달 연속 감소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난달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승인금액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월간 카드 승인금액 감소는 협회와 통계를 웹사이트에 공표한 2013년 2월 이래 2017년 10월 0.8%가 줄어든 것 말고는 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한 올해 3월이 처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폭풍전야'...대규모 '해촉' 예고

조세금융신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면 보험사들은 40만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의무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GA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실적 설계사 대다수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미래대우증권 IB인력 조정...증권사 몸집줄이기 나서나

이데일리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본사 IB부분 인력을 자산관리(WM) 업무인 고객센터로 이동시키는 인력 조정을 단행...IB인력을 이동시킨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관계자, "코로나19 여파로 IB가 울스톱되면서 분위기가 흉흉한 것이 사실...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추가 인력 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소문도..."

메리츠증권 2000억 유상증자 추진

한국경제

메리츠증권, 최대주인 메리츠금융지주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신주 5,865만 주를 액면가 3.4배 수준인 3,410원에 발행...지난해 말 2500억원 규모의 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추가로 자본 확충에 나서 자기자본을 4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